

일본의 중고 및 초중 일관교육에 관한 연구

홍후조(洪厚祚)*

변자정(卞慈晶)**

논문 요약

이 연구는 일본의 초중, 중고 일관교육의 도입 배경, 교육적 특징, 교원 운용, 시설 활용, 교육적 장단점 등을 사례 연구한 것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초중등 통합운영학교 나아가 현재 학제-교육과정제-교사양성 및 운용의 불합치(mismatch) 현상이 지닌 문제점과 과제에 대한 일정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일본 일관교육 도입의 기본 목적은 기존에 단절되고 분리된 학제와 교육과정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일관되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학습자의 지속적인 발달과 개개인의 적성 및 능력을 고려한 특성화된 교육을 제공하는데 있다.

일본의 일관교육 실시 학교 사례를 보면 초중 일관교육이 도입의 목적 구현을 어느 정도 달성하는데 반해, 중고 일관교육은 사립학교를 중심으로 교육계층화의 위험과 함께 6년을 대학입시를 위한 충분한 시간 확보로 오용하는 면이 많다는 점이다. 이는 의무교육을 일관되게 충실히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학습자 발달단계에 더 부응하면서 기초 기본을 튼튼히 할 수 있고, 지역사회와 가정, 학교의 연대의식을 강화시키는 초중 일관교육의 형태가 더 채택할만한 것임을 시사해준다. 통합운영학교 문제를 해소하되 중고보다 초중 통합운영학교를 우선 추진하기 위해서나, 나아가 초중학교 의무교육의 명실상부한 달성과 튼실한 기초 기본 교육을 위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학제-교육과정제-교사양성 및 운용제-의무교육제와 같은 기본적인 교육제도간 일치나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교육과정 연계성, 일관교육, 초중 일관교육, 중고 일관교육, 통합운영학교, 학제, 의무교육제도

*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 교신저자,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박사과정 수료

I. 서론

현재 우리나라는 출생률 감소에 의한 전반적인 학생 수의 감소 현상, 농어촌 지역의 아동 감소로 인한 학교 통폐합과 통합운영, 대도시지역의 과밀학교 현상 등 많은 사회적 여건 변화로 공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개혁, 혹은 변화가 시도되고 있다. 그 중 통합운영학교는 소규모 학교를 단순히 폐교시키는 것이 아니라 학교 자체는 변함이 없이 학교급간의 협력을 추진하고자 하는 방안으로 초등학교, 중학교와 고등학교가 그대로 유지되면서 서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고자 하는 학교 경영의 방안을 일컫는다(최준렬, 1996; 이정애, 2010). 통합운영학교는 1996년 2월 9일 교육개혁위원회의 제3차 대통령 보고서에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그 내용은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초·중·등 학교제도를 농어촌 지역, 중소도시, 대도시 등 각 지역의 실정에 맞게 통합운영 할 수 있다”와 “초·중·등 학교 교육과정의 통합운영을 위해 교육원, 시설, 설비를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완화하고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로 기술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경직된 학교 급별 수업 연한 운영에서 벗어나 학년제 개념에 기초한 수업 연한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그 구체적인 의미를 밝히고 있다(박찬주, 김선중, 2004).

이와 같이 통합운영학교는 규모의 영세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학교교육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학교간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경직된 학교 교육과정에 탄력성을 부여하여 교육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의 통합운영학교는 소규모 학교들이 일단 폐교를 면하고 학교규모의 영세성을 벗어나는 무늬만인 ‘통합운영’에만 급급한 현실이다. 통합운영으로 생기는 교육과정 운영 및 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은 부족하고 행정 전반의 절차는 모두 기존의 학제 시스템에 의존하다보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즉 시대적 사회적 변화로 인해 현실적인 여건들은 통합운영학교의 모델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통합운영이라는 이름 뿐, 여전히 단절, 분리된 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적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통합운영의 교육적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먼저 통합운영의 핵심이 되는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의 탄력성, 유연성을 바탕으로 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새롭게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운영학교의 ‘통합’은 단순한 의미에서 현실적인 편의를 위해 초·중·고의 학제를 붙이고 한 울타리 안에서 교육하는 의미가 아닌, “교육과정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한 교육력 신장”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통합의 핵심은 교육과정 연계성에 있다. 교육과정 연계성은 교과(교육 내용)의 측면에서 교육 내용 조직의 논리성 확보와 학생 측면에서 학생들의 지속적인 성장발달을 위한 기본이 되며, 사회적 측면으로 교육과정의 경제성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공교육의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바탕이 된다(이승미, 2010). 즉 통합운영학교의 교육은 넓은 의미에서 교육과정 운영의 탄력성을 보장하고 일관적인 교육의 실시가 이루어져야 함을 말한다.

교육과정 연계성의 ‘연계’ 혹은 ‘접합’은 영어로 ‘articulation’이라는 말로, 본래 “뼈와 뼈를 연결함”을 의미하는 것인데, 해부학에서의 ‘관절’이라는 “절을 잇는다”와 음성학상의 “분절화”의 ‘조음’이라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 ‘articulation’의 어원상의 의미로부터 “하나와 다른 하나를 잇는다”라는 의미로 “연결한다”라는 연속성과 “구별한다”는 불연속적인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는 교육과정 연계성이 기존의 학교나 기성의 교육단계를 단지 연결시키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각 학교단계를 적절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미를 지닌다(梨子, 2004). 일본의 ‘일관교육(一貫教育: seamless education)¹⁾은 이러한 교육과정 연계성의 특징에 주목하고 단절분리되어 있던 교육과정 체제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새로이 접합, 구분을 한 시도이다. 여기서 일관교육은 학교 교육에 ‘학교급’이라는 마디가 없이 학습자의 연속적인 성장을 반영하여 운영하는 제도인 통합운영학교를 의미한다.²⁾

이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 통합운영학교가 직면한 문제를 일본의 일관교육 사례를 고찰함으로써 새로운 관점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연구를 위해 먼저 일본에서 일관교육의 실시배경, 의미와 성격을 고찰하고, 구체적인 일관교육 사례를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 측면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다음으로 일관교육에 대한 일본 내의 평가를 정리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통합운영학교에 주는 시사점을 정리한다. 이러한 고찰은 그동안 고착된 「6-3-3」의 학제 안에서 고정된 교육과정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시대와 학습자 중심의 교육과정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II. 일본의 일관교육

여기서는 교육과정의 연계성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인식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유연성을 부여한 일본의 일관교육 설치 배경과 경위, 그 의미와 성격을 알아본다.

- 1) 일본의 논문들은 일관교육을 초중 일관교육의 경우, *integrated education* 혹은 *the combined system with elementary school and junior high school* 등과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 연구에서는 일관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위해 단절됨이 없이 매끄럽게 이어지는 교육 시스템을 의미하는 뜻에서 ‘seamless’라는 단어로 통일하여 사용한다. *seamless*는 사전적 의미로 “술기가 없는”과 “중간에 끊어짐이 없는 아주 매끄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 2) 보통 근대적인 개념의 학교가 등장하기 전의 교육을 일관교육이라고 보고 있다. 서양에서 이루어진 가정에서의 개인 지도나 우리나라의 서당에서 이루어진 교육 등은 초등 시기부터 중등 시기까지 연계하여 지도하는 일관교육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다가 현대 사회에 이르러 모든 학생들이 정규 학교 교육을 받게 되면서 대폭 늘어난 학령인구의 분할 수용 필요성 등 학교 운영의 편리성을 위해 학교급의 벽을 세우게 되었다. 예를 들어, 근대사회이전에는 주로 성인 대상의 대학교육이 진행되었고, 이를 준비하는 예비학교(*preparatory school*)로서 고교가 등장했고, 이후 아동의 발견과 산업사회, 민주사회의 기반으로서 의무 보통평등 보편 교육으로서 초등학교가 등장하였으며, 그 사이를 메우는 중학교(*intermediate/middle/junior high school*)가 등장하였다.

1. 일본 일관교육의 도입 배경 및 실시 형태상 특징

일본의 기본 학제는 제2차 세계 대전 이전에는 유럽식 학제(특히 프랑스 학제와 독일식 고등교육의 융합)를 모방한 복선형 학제이었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 패전한 이후 미군정이 주도하는 교육개혁을 통해서 “미국식 민주주의 교육”이라는 단선형 학제로 변화시키게 되었다(윤종혁, 2008). 현재는 우리의 학제와 같은 단선형의 「6-3-3-4」 제를 채택, 취학전 교육(유치원), 초등교육(초등학교), 중등교육(중학교·고등학교), 고등교육으로 나뉘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9년간의 의무교육기간이다. 조금 특이한 점은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6년제 일관교육 형식과 아직 법제화되지는 않았으나 초·중학교 단계도 9학년간의 「4-3-2」 제를 도입시켜 형식적인 틀을 많이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21세기 새로운 일본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된 일본의 제3의 교육개혁의 일환³⁾으로 2000년 12월 22일 ‘교육개혁국민회의’의 최종보고서를 통해서 시작된 일본교육기본법의 개정이 시발점이 되었다. 교육기본법 개정 이전에 문부과학성은 다음과 같은 교육환경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교육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문부과학성, 2005).

첫째, 도시화와 자녀수의 감소로 가정이나 지역사회의 교육력이 현저히 줄어든 점, 둘째, 청소년기의 사회성이나 규범의식이 과거에 비해 저하된 점, 셋째, 지나친 평등주의에 입각한 “유트리 교육⁴⁾”에 의해 학교 교육이 획일화되고 과도한 지식의 집적에 의해 아동의 개성과 능력에 대한 교육이 경시된 점, 넷째, 사회 경제의 변화가 과거 어느 때 보다 빨라져 초·중등 교육에서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시스템 전체와 관계자들의 의식이 시대나 사회의 흐름에 충분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다. 또한 학습지도요령의 변천과정을 통해서도 자율성과 다양화, 세계화 시대에 적합한 핵심역량을 기르는 학습에 중점을 둔 일본 교육개혁의 흐름을 알 수 있다.

1) 중고 일관교육

중고 일관교육은 초등교육만 의무교육이었을 때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근대 학제가 도입된 이후 소학교는 의무무상이었으나 중등학교는 유상이었다. 중등학교는 엘리트 공립학교이거나 사립으로서 대학교육을 준비하거나 직업준비를 하는 기관이었다. 최근 교육개혁의 흐름 안에서 공립 중고 일관교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경위는 1971년 중앙교육심의회 답신 “미래 학교교육의 보충정비를 위한 기본시책에 관하여”에서 시작된다. 답신안의 내용은 당시의 교육문제로 중

3) 일본은 1872년 메이지 정부의 학제 반포로 시작된 근대 공교육을 제1교육개혁으로,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교육기본법에 입각한 교육을 제2의 교육개혁으로 보고 있다(노기호, 2008).

4) 2002년부터 공교육에 본격적으로 도입되었다. 과도한 주입식 교육을 지양하고 창의성과 자율성 존중을 표방하며 학교 수업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기초학력 저하현상 등 부작용이 심화됨으로써 2007년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학력강화 교육방침으로 선회하였다.

학교와 고등학교의 분할이 청소년기의 내면적인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고 중·고등학교를 접목하여 일관적인 학교로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게 된다. 이후 1982년의 임시교육심의회 제1차 답신에서도 “6년제 중등학교”에 대한 제언이 있었다. 답신안에 대한 6년제 중등학교의 의의를 “중등교육은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학생의 다양성이나 미래에 적합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구조를 유연하게 함과 동시에 다양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학생의 개성을 중시하는 교육의 하나로서 일관교육을 제안하고 있다(임시교육심의회 제1차 답신 제3부, 1985; 田中, 2002).

1997년의 2차 답신안에서 보면 중고 일관교의 존재방식에 대해 “한번에 「6·6」 제로 학제를 개혁하는 것”이 아닌, “선택의 폭을 넓혀 학교제도의 복선화 구상을 추진해 나아가려는 관점에서 중고 일관교육의 선택적 도입을 실시하는 것”으로 설명된다. 학교제도를 단선제에서 복선제⁵⁾로 개혁하려는 의의와 ‘선택’개념의 중시 등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설명을 내놓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일본에 지금까지의 3·3제의 중·고등학교 학제와 함께 6년제 학교를 함께 두어 학생과 학부모가 각자의 개성에 맞추어 “학교 선택”을 하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중고 일관교육은 전기 중등교육(일반 중학교 교육)과 후기 중등교육(일반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낭비를 줄이고 일관성을 갖게 한 체계적인 교육 방식이다. 중고 일관교육에 대해서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요구에 응해서, 설치자가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중등교육교, 병설형 중·고등학교, 연휴형 중·고등학교의 세 가지 실시 형태가 있다. 현재 중고 일관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2011년도 기준으로 402개이다. 이는 일본 전국 고등학교(전일제) 학교수 4,451개(2011년) 중·고등학교 수의 약 8%에 해당된다. 아래에서는 이들을 간단히 설명하고 비교해본다.

<표 1> 중고 일관교육의 실시형태별 내용 및 특징

종류	실시형태	교육과정 적용기준 및 특례적용	입학자 선발
중등 교육교	중등교육 6년간을 일체로 교육하는 학교 중학교 3년간을 전기과정, 고등학교를 담당하는 3년간을 후기과정이라 부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기과정은 중학교의 학습지도요령, 후기과정은 고등학교의 학습지도요령을 따름. 기준 특례가 실시: 중고 일관교육으로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중학교의 단계에서 선택교과에 의해 폭넓은 도입을 할 수 있을 것, 전기과정과 후기과정의 지도내용의 일부를 바꾸어서 지도할 수 있는 것 등의 내용을 가지고 교육과정의 기준 특례를 실시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등교육학교의 입학에 있어서는 설치자가 정하는 것에 의해 교장이 이를 허가. 이 경우, 공립 중등교육학교에 있어서는 수험경쟁의 저연령화로 이어지는 일이 없도록 학력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

5) 일반적으로 단선형은 초등-중등-고등(대학)에 이르는 진학계 학교에서 찾아볼 수 있고, 복선형은 보통 고교에서 진학계와 함께 직업계 학교를 두어, 서로 다른 학업 및 직업 진로를 제시, 선택, 유도하는 제도를 말한다. 여기서는 중등학교 단계를 3·3제와, 6년제 일관통합 학교제도를 나란히 두어 선택한 것을 지칭한다.

<p>병설형</p>	<p>동일 설립자(도도부현이나 시정촌)가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병설하여 접목시켜 중고일관교육을 실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이,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이 적용됨. • 중등교육교과와 마찬가지로 기준 특례가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설형 중학교 입학에 대해서는 설치자가 정하는 한도에서 교장이 이를 허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 이 경우, 공립 병설형 중학교에 있어서는 중등교육학교와 마찬가지로 학력조사를 실시하지 않음. 또한 병설형 고등학교에 있어서는 해당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병설형 중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입학선발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함.
<p>연휴형</p>	<p>지역에서 결속이 강한 고등학교와 지역의 중학교가 연대하여 조직하는 사례가 많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학교의 설치자가 설치자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정해진 것에 따라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는 것과 함께 해당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양자가 연계하여 각각의 교육과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 • 기준 특례가 실시: 단, 타 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연휴된 중학교 이외의 학생도 고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중고일관교육 실시형태에 비해서는 교육과정상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휴된 중학교에서 연휴 고등학교로는 간단한 선발방식으로 진학하는 것이 가능. • 이 경우 조사서 및 학력조사의 성적 이외의 자료로 입학자 선발.

위의 <표 1>과 같이 세 가지 형태 모두에서 전기과정은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이, 후기과정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이 적용된다. 중고 일관학교의 경우 중학교 단계에서 선택교과를 보다 폭넓게 도입할 수 있으며, 전기과정과 후기과정의 지도내용의 일부를 교체하여 지도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기준의 특례가 적용된다(이혜영 외, 2008). 단 연휴형의 경우는 타 지역의 고등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이나 연휴된 중학교 이외의 학생도 고등학교에 입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중고 일관교육 실시형태에 비해서는 교육과정상 유연성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

2) 초중 일관교육

초중 일관교육은 기본적으로 의무교육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의무교육기간에 든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단절시키기보다 연계시켜야할 필요성과, 평생학습시대에 거의 모든 학생들이 중등학교에 진학한다는 사실은 학교급간에 입시와 같은 인위적인 장벽을 설치할 필요성이 줄어든다는 점, 또 농산어촌 등에서부터 학생수가 줄어들에 따라 자연스럽게 학교간 통합 운영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2006년도에는 구조개혁특구의 인정을 받은 형태로 17개 시구정촌(市區町村), 문부과학성의 연구개발학교의 지정을 받고, 15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이 초중일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교육과정 편성도 현행의 「6-3」제의 조직이 아닌

「4-3-2」 제, 「3-4-2」 제 등 각 지자체에서 특성을 살려오고 있다.

우선 초중 일관교육의 교육과정은 어린이의 심리적 신체적인 발달과 행동 양상이 5학년 무렵을 경계로 변화하는 것에 주목한다. 초중 일관교육은 9년간의 일관적인 성장과 발전에 중점을 두고 1~4학년, 5~9학년을 두 단계로 정리하고, 마지막 8, 9학년은 개인에 따른 지도를 철저히 하는 내용을 재구성하고 있다. 이것은 초등학교 4년, 중학교 5년으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초등학교 6년 동안 배우는 내용을 4년 안에 마스터하고 다시 5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공부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현재의 학습지도요령의 내용을 기초로 두고 9년이라는 기간에 학습을 진행시켜 나갈 때 학습 내용과 그 양, 그리고 그 순서를 탄력적으로 편성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모두 의무교육과정에 해당되기 때문에 중고 일관교육에서처럼 의무교육과 선택교육과정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과정의 늘림 현상이나 학교성적 부풀리기를 위한 선수학습 등은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다.

최근 초중 일관교육이 일본의 공교육 지자체 사이에 늘어나고 있는데⁶⁾ 초중 일관교육은 지금의 일본 학제 시스템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중고 일관교육과는 다른 시각에서 교육과정의 연계를 바라보고 있다. 먼저 첫째, 일본 의무교육 상에서 벌어지는 공통의 문제에 대해서 시나가와 구 교육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먼저 일본 초등학교 교원의 대부분은 중학교에서 “지식 주입의 획일적인 학습”, “체벌적이고 위압적인 생활지도”에 불신을 가지고 있다. 반면 중학교 교사는 “초등학교에서 학생에게 칭찬만을 하여 학습이나 기본적인 생활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고, 중학교에서 모든 것을 다시 가르쳐 고쳐야 한다”는 등 초등학교 지도에 대한 신뢰가 낮다. 이러한 초·중학교 교사 사이에 뿌리 깊게 존재하는 상호 불신과 불간섭주의라고도 할 수 있는 인식으로 인한 책임 전가가 서로의 의사소통 및 공통적인 이해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은 고스란히 학생의 배움의 피해로 돌아온다. 우리나라 역시 학교급간 단절과 소통 부족으로 인한 상호 불신과 교육의 불연속성으로 인한 폐해를 겪고 있다.

둘째, 현재의 도덕 및 특별 활동은 아이들의 “마음의 교육”과 “인간 형성”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학습이지만 자칫 이론적으로만 강조되기 쉽다. 따라서 사회의 기본적인 약속과 ‘소통’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장래와 삶을 생각해서 구체적인 수단과 기술 등의 습득에 중점을 두는 실질적인 학습이 지금까지의 교육에서는 충분히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다. 교육위원회는 학생이 지식을 익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사회의 일원으로서 ‘상식’과, 인간으로 소소한 이유를 넘어 ‘이(理: 보는 각도)’를 가르치는 것을 주저하는 경향도 학교 현장에는 볼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우리 교육현실에서도 지식 위주의 경쟁, 선발, 대입시준비 교육의 경향이 크게 작용하고 그 폐해들이 나타나고 있으며, 일본의 중고 일관교육의 형태 역시 대입을 위한 남과

6) 요코하마시에서는 2012년부터 시내의 전 초등학교에서 일관교육을 실시하는 준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500여개에 가까운 학교들이 초중일관교육을 실시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비교한 우열과 승패 교육의 도구로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학교 교육을 둘러싼 구체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시나가와구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초·중학교 교육 과정의 범위와 시퀀스, 그리고 지도 방법 등의 장벽철폐(barrier free)를 목표로 함과 동시에 학교와 교직원의 고착화된 사고에서 탈피를 실현하기 위해 초중 일관교육을 구상하기에 이르렀다.

초중 일관교육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총 9년간 일체의 것으로 파악하고 기존의 「6-3」 제를 「4-3-2」 제로 하고, 독자적인 교과목을 설치하는 등의 교육과정 운영을 하여 학생 개개인에 맞춘 교육을 실시하여 학력과 정서를 기르자는 것이다. 중고 일관교육이 1999년도부터 제도화되어 있는 반면, 초중 일관교육은 법적 제도적으로 국가수준에서 공식적인 제도로 실시되고 있는 것은 없다. 문부과학성의 "연구개발학교"와 정부의 "구조 개혁특구"라는 특례를 사용하거나 프로젝트션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초중 일관교육의 실시형태는 시설일체형과 시설 분리형의 두 가지로 나뉜다. 시설일체형은 학교 시설, 조직·운영 모두를 통합하여 초·중 일관교육을 실시한다. 학교시설을 새롭게 하거나 기존의 인접한 초중학교 교사(校舍)를 개축하거나 정비하고, 조직과 운영은 교장 1명을 중심으로 하여 초·중학교 교원이 일체가 되어 학생들을 지도한다. 시설분리형은 기존의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각각의 학교시설과 조직·운영을 유지하면서 가까운 학교끼리 연계해 일관교육을 실시하는 형태이다(홍광식, 2009). 현재 일관교육을 실시하는 대부분의 학교가 이 시설분리형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연계 형태는 하나의 중학교에 하나의 초등학교, 혹은 하나의 중학교에 복수의 초등학교로 조직되어 있는데 중고 일관교육의 연계 형과 유사하다.7)

2008년을 기준으로 지방공공단체 82개, 국립학교법인 11개, 사립학교법인으로 5개 학교, 총 98개의 학교가 초중 일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실시학교 수는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시나가와구와 요코하마시는 지역에 속한 모든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일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06년 말에 개정된 교육기본법에서는 "의무교육"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었는데 문부과학성에서는 지방의 사정을 고려해 "의무교육학교(가칭)"라고 하는 새로운 학교의 종류를 제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최근에 중고 일관교육교의 형태처럼 가까운 시일내에 지자체에서도 초중학교가 초중 일관교육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수도 있다.

7) 예를 들어, 특구 인정을 받고 2006년도부터 구내 모든 학교에서 초중 일관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도쿄 시나가와구에서 인접한 초·중학교 사이에 실질적인 일관 교육을 실시하는 것 외에 한 시설을 사용하는 일관 학교에서도 "○○ 초등학교" "×× 중학교"라는 정식 명칭은 남기면서, 평소에는 "△△ 학원"이라는 통칭으로 통해 9년제 학교로 운영을 있다. 그 형태도 9년간의 구분을 4-3-2 등에 나누거나 혹은 6-3 그대로 작은 중학교 선생님이 상호 노선 연장에서 수업을 실시하는 등 다양하다. 새로운 일체형 건물을 지을 경우를 제외하고 연계하는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인접하고 있는 경우와 떨어져있는 경우, 초등학교가 다수 있는 경우 지리적 물리적 조건 등에 따라 달라진다.

Ⅲ. 일관교육의 사례

이 장에서는 통합운영학교의 교육효과 증대를 위한 모델로서 일관교육의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기 위해 단위학교별 교육과정을 살펴본다.⁸⁾

1. 중고 일관교육 사례

1) 중등교육학교: 미야자키 현립 고카세(五ヶ瀬) 중등교육학교

미야자키현립 고카세(五ヶ瀬) 중등교육학교는 일본 최초의 중등교육학교로서 1994년에 개교하였다. 학교를 둘러싼 환경이 삼림 지대라는 특색을 살려 "Forest Fear 학습(フォレストピア学习)"라고 이름을 붙여 숲길 만들기와 모내기 등 자연 체험을 중시한 교육이 행해지고 있으며 "메아리 기숙사"라는 기숙사가 있는 기숙학교이다. 학교는 남녀공학이며 233명(2012년 현재)의 학생 수로 소규모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이다. 이 학교는 문부성 연구 개발 학교에 여러 번 지정되었고 입학시험으로는 적성 검사를 실시한다.

<표 2> 고카세 중등교육학교의 특징

- 6년 동안 학생들을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학생의 개성에 맞추어 교육과정의 편성과 학습지도 및 진로지도가 가능하다.
- 전기 과정과 후기 과정 합동 특별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 사회성, 자주성, 자발성, 협동심, 지도력 등을 폭넓게 키울 수 있다.
-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함으로써 학교생활 체험을 통하여 사회성과 인간성, 지도성 등을 폭넓게 성장할 수 있는 동시에 한 인간으로서 더 나은 본연의 자세 삶을 체득시킬 수 있다.
- 기숙사의 생활 체험을 통해 사회성 및 자기 관리 능력, 자주성, 자율성, 협동심, 인내, 리더십 등을 폭넓게 키울 수 있다.
- 6년간의 지도를 통하여 관심 관심과 개성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학생지도를 개별적으로 계획적이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

* 출처: 미야자키현립 고카세 중등학교 홈페이지 <http://gokase-h.com>

위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이 학교의 전체적인 특징은 다른 중고 일관교육 실시학교와 마찬가지로 6년간의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지도에 의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기반으로, 학교가 위치한 자연환경을 살려 보다 자연친화적인 인간다움을 지향한다. 특히 이 학교의 이념

8) 논문은 공교육 체제 안에서 일관된 교육과정 운영을 살펴보기 위한 것으로 병설형 중고 일관교육의 경우 사립학교의 사례가 대부분이라 제외시켰다.

인 'Forest Fear'는 산촌의 풍부한 산림 자원을 비롯하여 예로부터의 생활과 문화 등을 독창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인간성 회복의 숲"으로 생생한 산림을 만들고자 하는 구상에서 출발했다. '숲'이라는 자연 교육의 장을 바탕으로 자연에 대한 경외감을 갖게 하고 젊음이다운 야성미와 모험심의 육성 및 복구 노력 등 풍부한 인간성과 창의력 협동심을 배양하여 주체적으로 사는 인간의 육성을 도모한다. 교육과정은 중학교 전기과정은 1·3학년 3년간으로 주로 공통필수 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고교 후기과정은 4·6학년으로 4학년은 공통으로, 5학년은 문과와 이과로 나뉘고 6학년에서는 다시 세분화하여 대학 진학 진로에 따라 문과를 세 종류로 구분한다. 문과1은 인문·사회·예술을, 문과2는 사회·과학·수학에 대해서 더 중점을 두며, 문과3은 문과2보다 현대사회를 더 공부한다.

2) 연휴형: 미에현(三重縣) 이이난(飯南)지역

미에현립 이이난 고등학교는 이이난현(2005년 이후 이이난현은 마츠자카시(松阪市)에 합병된 상태이다)에 있는 유일한 고등학교였다. 이이난촌(飯南町)과 이이타카촌(飯高町)은 마츠자카시 도심에서 20~60킬로 정도 떨어진 조용한 마을로, 일본의 유명한 마츠자카 규(松阪牛)라는 쇠고기의 산지이며, 질 좋은 목재를 생산하는 지역으로 전형적인 농어촌 지역이다. 이전부터 이 지역의 사람들 거의가 이이난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졸업생은 지역의 산업 현장에서 업을 삼고 있었다. 하지만 시대적 사회적 상황이 변화하자 이 지역 학생들의 많은 수가 마츠자카시 등 다른 도심 지역의 고교로 진학하게 되었고, 졸업 후에도 고향에 돌아오지 않는 이농현상이 심해졌다. 따라서 이이난 지역은 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현지에서 공부하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젊은 인재를 늘려가는 것이 하나의 과제가 되었다(일본교육연구개발센터, 2011; 이이난 고등학교 홈페이지, 2012).

“이농현상에 따른 지역 고등학교의 교육 질 저하”라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시작된 이 지역의 중고 일관교육의 설치 경위는 다음과 같다. 먼저 미에현에서는 1992년도에 미에현 고등학교 교육개혁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를 설치하고 고등학교 교육개혁 및 고등학교 입학자 선발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조사검토를 실시했다. 중고 일관교육에 대해서 추진협의회가 1997년 1월의 교육개혁 프로그램(문부성) 발표 이전부터 검토를 하고 있었고 1998년 7월의 제1회 이이난 지역 중고 일관교육 연구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쳐, 같은 해 8월에 추진협의회에서 미에현 및 이이난 지역의 중고 일관교육 방식으로서 연휴형을 채택하게 되었다. 아울러 이이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경우 고등학교의 형태는 종합학교9)가 적합하다는 교육의 방향성도 정하게 되었다.

9) 일본의 고등학교 종합학교는 보통교육을 주로 하는 “보통과”와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전문학과”를 모두 설치하는 것으로 1994년부터 도입되었다. 다양한 선택과목 중에서 학생 스스로 과목을 선택하여 배울 수

학교의 교육사명은 “연휴형 중고 일관교육의 개선과 충실에 도모하면서 학생 한 명, 한 명의 학력을 늘려 자립할 수 인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며 교육목표는 “사람에게 상냥하고 배려의 마음을 가진 학생을 기른다. 기초 기본 학력의 정착을 도모하고 학생 개개인의 개성을 신장시킨다”로 정하고 있다. 학생선발 과정은 연대된 3개의 중학교의 학생들에게 학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과정학습 보고서의 제출이라는 면접고사를 실시하고 있다. 학교 교육과정은 먼저 지역의 학생들을 지역에서 공부시키겠다는 목적으로 중학교 과정에서 지역의 환경과 지역의 역사, 사회, 지역의 특산물과 요리 등 이른바 “향토 커리큘럼”을 조직하고 있다. 설치된 교육 코스는 향토·환경과, 개호(介護)복지과(지역의 노약자 혹은 장애인 간호 등 사회복지와 관련된 학과), 국제커뮤니케이션과, 컴퓨터과의 4개 코스가 있다. 이들 계열은 향토코스 개설 당시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어진 자료들을 바탕으로 개설된 것이다. 특히 향토·환경과가 설치되어 있어서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취득한 지역 사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더욱 심도 깊게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향토학습은 아래 <표 3>과 같이 진로교육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표 3> 이이난지역 중고 일관교육의 진로교육

중학교 과정:	
인간과 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에 대해 알기(나는 누구인가, 장래의 꿈은 무엇인가, 내 가능성은 어떠한가?) • 일하는 것과 직업에 대해 생각하기(나로부터 가까운 사람들의 직업, 직업 현장 방문을 통한 직업과 진로에 대한 탐색) • 진로선택에 고민하기(진학할 상급학교 조사, 이이난 고등학교 종합과 체험학습, 졸업생과의 만남)
고등학교 과정:	
1학년/산업사회와 인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 방법을 배우기: 계열별 체험, 캠퍼스 인턴쉽 • 일하는 모습을 이미지화: 캐리어 인턴쉽, 계열별 본등록, 발표회
2학년/캐리어 디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열별 학습을 연장: 캠퍼스 인턴쉽, 셀프프로듀스형 인턴쉽 • 장래를 고민하기: 프리 이이난세미나, 발표회
3학년/ 이이난 세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결정: 세미활동, AO입시, 취직시험 • 진로 방향에 따른 합격과 내정: 연간 보고서 발표회

* 출처: 이이난 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www.mie-c.ed.jp/hiinan>에서 참고하여 작성.

이이난 고등학교 종합과는 필수선택과목으로 1학년 과정에서 “산업사회와 인간”이라고 하는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생각하는 수업을 실시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과목을 이수한 후 2학년 과

있으며, 학생의 개성을 살린 주제적인 학습을 중시하며, 미래의 직업 선택을 염두에 둔 자기 진로에 대한 자각을 심화시키는 학습을 중시하는 교육적 특색을 지닌다(문부과학성, 2012).

정에서 자신이 배우고자 하는 계열을 선택하게 된다. 고등학교 1학년은 “산업사회와 인간”, 중학교에서 “인간과 사회”라는 과목으로 직업관의 양성이나 자기 삶의 방향을 생각하는 과목을 설치하고 있다. 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진로지도학습이 하나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산업사회와 인간”의 학습은 지역사회에 대한 체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신의 고장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공헌할 수 있는 인재로 인도할 수 있는 과정이기도 하다.

이이난 고등학교와 연계된 3개의 중학교는 진로교육과 관련한 교육과정 프로그램 실시 외에도 연대의 큰 목적으로서 “교육과정의 직결”과 “입시의 직결”을 위해 학생과 교사의 교류를 넓혀가고 있다. 여름 방학 중에 연계된 3개 중학교의 3학년 학생 전원이 이이난 고등학교를 방문하여 계열별 수업과 동아리 활동의 참관 및 교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이이난 고등학교에서는 매년 2월과 3월에 총합적 학습시간을 통해서 과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이이난 세미나 발표회”를 이이난촌의 홀에서 개최하고 있다. 이러한 교류 활동 안에서 이이난 고등학교는 지역 중학생들에게 친근감을 바탕으로 이이난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을 늘려가고 있다.

3) 중고 일관교육에 대한 평가

중고 일관교육은 그간 일본에서 고교입시로 인해 부담을 받고 있던 학생은 보다 여유있고 충실한 중고교 시절을 보낼 수 있고 학교는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다. 앞서 살펴본 일본 중고 일관교육의 사례는 대도시 중심의 교육현실에서 지역 교육의 활성화, 세계화 시대 글로벌 교육을 선도하는 선택과 집중의 노력, 그리고 교육목표에 대한 시각을 달리하여 자연과 인간 친화적인 교육을 지향하고자 하는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일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다양한 목표를 가지고 중고 일관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들은 그렇지 않은 기존의 학교와 비교하면 다음의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과 함께 비판점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일본의 중고 일관교육은 학생들을 고교입시 경쟁에서 벗어나 보다 내실 있는 중등교육을 표방하고 있어 고등학교 진학의 수험이 불필요하거나 간단한 시험만으로 진학할 수 있다. 이러한 방침이 학생들을 입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정상적인 수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큰 장점으로 작용하나, 한편으로 학생 자신의 학습 태도의 차이에 따라 고교과정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 내에서 학생 간의 학력차가 커지는 경향이 있다.

둘째, 일관교육은 6년간 동일한 환경에서 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교육 지도를 받을 수 있고 동기간, 선후배간 두터운 관계를 유지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일관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자신들과 다른 환경을 가진 학생과의 교류 기회가 적어지고 자신이 속한 좁은 세계 밖에 모르는 편견 생각의 소유자가 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문

제점이 있다. 이에 대해 공립학교에서 중고일관교육이 시작된 초기부터 중고 일관교육을 실시하는 학교가 "선정된 학생만의 특별한 학교"가 되는 것은 구조적인 필연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공립중학교의 폐단, 왕따, 학급붕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사립 혹은 중고일관교육 학교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편이라 학부모들은 자연히 자신의 아이들을 공립중학교에 보내기를 꺼려한다는 의견이 많다. 중고 일관교도 앞서 지적한 왕따 문제나 학급붕괴의 모습이 전혀 없다고도 단언할 수는 없다. 대학 진학 실적만을 중시하는 일부 중고 일관교의 경우는 문제소행이 있는 학생과 성적이 부진한 학생을 중학교 졸업 시점에서 내부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하지 않는 등의 편법을 사용하여 진학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학교도 있어, 이러한 압력이 학생들 사이의 폐해를 낳고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藤田, 1997).

셋째, 중고 일관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들의 교육과정은 필수과목을 적게 하고 중학교 전기과정에서 후기과정인 고등학교의 수업내용을 선수(선행) 학습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 점은 옛 제도에서 사립학교에서만 가능했던 입시 준비에 편리한 교육과정을 공립학교에서도 가능하게 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실제 학교현장에서는 필수과목을 적게 하기보다 기초 학습의 불충분을 막기 위해 주요과목 학습시간을 더 늘리고 있고, 후자의 경우도 학생 간 학력차가 벌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낳고 있다.

넷째, 중고 일관교 중에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모집을 별도로 하지 않는 학교도 많다. 그렇기 때문에 교풍이 자신에게 맞지 않더라도 다른 학교에 진학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일단 외부 고등학교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게 되면 전학은 무리 없이 이루어지나 외부 학교 지원 후 떨어진 경우에는 부설 고등학교 내부 진학 자격까지 잃어버리는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특징은 사립대학의 부속학교는 일반 입시를 받지 않아도 대학에 내부 진학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소위 진학이 어려운 상위권 레벨 대학의 부속학교의 인기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고 일관교육이 진정한 의미에서 중등교육을 다양화하고 내실화하는 방향은 입시나 진학을 위한 '고속도로'로 이용되는 진학 준비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다양한 진로 요구를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방향을 취해야 한다는 반성이 적지 않다.

2. 초중 일관교육

초중 일관교육은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가장 초중 일관교육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동경도 시나가와구의 사례와 농어촌 학교인 토비시마촌의 일관교육을 살펴본다.

1) 도심지역 사례: 동경도 시나가와구(品川區)

동경도 시나가와구의 초중 일관교육은 2006년 4월부터 시나가와구 전체의 구립 초·중등학교에서 실시하고 있다. 초중 일관교육에서는 초·중학교 6년과 중학교 3년이라는 벽을 넘어, 계통적이고 지속적인 교육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동의 심신의 발달을 기본으로 1~4학년에서는 신체의 발달과 학습태도를 만드는 기초·기본의 정착을 도모하고, 5~9학년의 전반기는 기초·기본을 익히는 것에 중점을 두고 지도를 하고 있다. 마지막 단계인 8~9학년기는 교과, 내용의 선택의 폭을 넓혀, 학생의 개성·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이와 같이 초중 일관교육의 교육과정은 중복되는 것은 삭제하고 반복적인 학습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교육내용을 정리하여 의무교육의 9년간에 반드시 닦아 놓아야 할 기초학력을 만들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과”나 “시민과” 등의 새로운 학습을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초중일관의 교육적 배려는 학생들의 학습 의욕을 높이고, 기초학력을 정착하도록 만들고 있다. 이 교육과정은 일본의 학습지도요령을 기본으로 만들어진 것이라 학생의 전입·전출 시에도 문제가 없고 교육과정 내용의 이행을 위해 시나가와구에서는 일부 교과서를 독자적으로 제작·사용하고 있다. 즉 수업에서는 기존의 문부과학성 “검정교과서”를 사용하지만, 시나가와구에서 새롭게 실시한 초등학교의 영어과나 시민과는 독자적인 별도의 교과서를 제작한다. 재편성한 학습 내용에 대해서는 “부교과서(副教科書)”도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살아가는 힘”이라는 문부과학성의 역량중심 교육을 중시한 시나가와구 히노데 학교의 체육과 교육과정을 살펴본다.

히노데 학교의 체육과 교육과정은 우선 지역내 초등학교와 연대하여 아동 학생의 체력향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9년간을 통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초중 9년간의 커리큘럼을 구성하고, 9년간의 배움 안에서 각 단원의 가치와 기능을 고려하고 있다. 특히 운동회나 부활동 등을 56학년과 중학교가 부정기적으로 함께 하고 다른 연령대의 인간관계 형성의 장을 형성하는 등 체력·운동능력 향상의 기회를 만든다는 취지이다.

〈표 4〉 시나가와구 히노데 학교의 체육과 교육과정

내용항목		전기(초등 1학년~4학년)	중기(초등 5학년~중학교 1학년)	후기(중2, 3학년)
중점 지도 내용	운동 기능 정착	운동의 즐거움을 체험한다. 기본적인 움직임을 몸에 익혀, 의욕적으로 체력을 기른다.	작전을 짜서 각종 운동에 응 용하여 기본적인 기능을 몸 에 익혀 체력의 향상을 도모 한다. 동료학생 간의 운동을 즐기고 스스로 과제를 해결하려는 배움의 자세를 터득한다.	자기 개성을 길러, 학생마다 운동을 즐기는 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학습을 계획하고 실천하여 활동이나 결과를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다.

	[몸 만들기 운동] [기구를 사용하여 운동, 놀이] [기초기본운동] [물놀이] [물장구, 해엄] [게임] [표현 리듬놀이] [표현운동] [보건]	[몸 만들기 운동] [기구운동] [지상운동] [수영] [공운동, 야구] [표현운동 댄스] [보건]	[몸 만들기 운동] [기구운동] [지상운동] [수영] [야구] [무도] [댄스] [체육심리] [보건]
생활 습관 개선	아침식사를 거르지 않는다. 9시간 수면하기	영양의 균형을 생각한 도시락을 스스로 만들 수 있다. 8~9시간 수면하기	영양의 균형을 생각한 식사를 스스로 만들 수 있다. 8시간 수면하기

이 학교에서는 9년간의 일관된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으로 얻은 성과로 다음 세 가지 점을 든다. 첫째, 초중 연대가 제3중학교 지역에 속한 각 초등학교의 과제를 입학 전에 파악하는 것이 가능해져서 학생들에 대한 계획적인 지도가 가능해졌다. 둘째, 초등학교 운동 활동 견학이나 체험입학 등을 계획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입학시 운동부 활동에의 가입률이 높아졌다. 셋째, 운동부 활동은 운동기능, 체력 향상으로 직결되는 부분으로 다음 해의 신체력 테스트에 큰 영향을 주며 지속적인 자기 관리를 위한 교육이 되고 있다.

2) 농어촌 사례: 아이치현(愛知縣) 토비시마촌(飛島村)

토비시마촌은 아이치현의 서남부에 위치한 인구 4,500여명의 작은 마을이다. 마을 동부 나고야(名古屋)에 인접하고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삼각주이다. 1928년부터 시작된 임해부의 조성 공사를 완료하여 1971년 나고야 항구의 일부인 서부 임해공업 지대로 편입되어 현재의 토비시마촌을 형성하게 되었다. 옛날 시골 풍경과 국제 항구인 나고야항을 중심으로 한 무역거점으로 서의 기능이 동시에 공존하는 마을이다. 현재 마을 주민은 4,500명을 전후로 증감하고 있으나 신생아 출생 수의 감소와 이농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마을 전체 면적의 약 6할 정도가 도시화 조정 구역으로 묶여져 있어 타 지역에서 인구 유입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어 각 초중학교는 학년별로 한 학급밖에 안되는 소규모 단설학교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실에서도 학부모들은 교육에 관한 관심이 높아 수업참관 등 각종행사에 열성적인 편이다. 또한 지역에서도 학교교육에 관심을 기울이고 다양한 교육적 노력을 하고 있다. 그 예로 국제적인 시야를 가진 인재 육성사업의 일환으로 해외 연수 등을 일주일과정으로 파견하고 있다. 이 사업은 다문화 교류체험을 통해서 이 지역 학생들의 시야를 넓히고 보다 빠른 시기에 국제적 의식을 정착시키고, 동시에 홈스테이 등의 해외연수를 활용하여 자립심과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배양하는 기회로 삼고 있다(토비시마촌 구조개혁특별구역계획, 2011)

(1) 4-3-2제의 도입

토비시마촌내의 초·중학교가 한 개 학교 밖에 없는 현실을 이점으로 생각해서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9년간을 저학년부 4년(전기교육: 초등 1~4학년), 중학년부 3년(중기교육: 초등 5학년~중학1학년), 고학년부 2년(후기교육: 중학 2~3학년)의 과정의 3단계로 구분한다. 이 과정은 학생 개개인이 갖는 자질과 능력을 높이고 풍부한 사회성과 인간성을 육성한다는 여타의 초중 일관 교육과 기본 이념과 같이 한다. 구체적인 단계별 구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저학년부 4년(기초기본기): 학습 측면에서는 학급 담임제로 수업을 실시하지만, 영어는 교과 담임을 번갈아 수업을 실시한다. 수학과 국어는 소수지도를 도입해 기초 기본의 확실한 정착을 도모한다. 생활면에서는 익숙한 경험 등을 통해 자신의 행동을 응시하게 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잘 살기 위한 좋은 마음과 도덕적 판단력을 기른다.
- ② 중학년부 3년(충실기):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지도 체제와 지도 방법의 차이에 적응시키기 위해 초등학교 5, 6학년에서는 수학 국어 영어에 교과 담임제를 도입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살린 수업을 실시한다. 또한 모든 학생이 학습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학습정도에 따라 지도한다. 생활면은 자연이나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함께 살아가는 마음을 기른다.
- ③ 고학년부 2년(발전기): 학습지도요령의 내용에 충실하기 위해 수학, 국어, 영어를 개별적으로 세심한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관심과 능력에 기반한 발전적인 학습을 조직하여 학생의 개성과 능력의 신장을 도모한다. 생활면에서는 장래 자신의 인생이나 사회에서 살아가는 힘을 기르는 실질적인 능력을 육성한다.

(2) 영어교육

이 지역의 초중 일관교육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영어에 관한 실제적인 의사소통 능력의 육성 정책을 펴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과정에서 '영어과'를 신설하고 영어교육의 조기 도입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중학교에서는 영어 수업시간을 증배하여 국제화 감각을 높인 영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영어교육은 현재 "총합적 학습의 시간" 등을 이용해서 1학년에서부터 영어활동을 하며 4학년까지 3인 체제의 팀티칭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5, 6학년에서는 특정 영어교과서를 사용하지 않고 게임이나 카드 등을 이용하여 회화 중심으로 영어능력을 키우고 있다.

중학교 단계에서는 초등학교 영어교육과 연계하여 영어를 듣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늘리고 영어회화에 관한 학습내용을 보충·전개한다. 해외 파견연수 시에 필요한 일상회화나 스피치, 입국심사, 쇼핑 등과 같은 일상적인 상황에서 영어회화 연습을 하게 된다. 영어과 지도교사는 영어를 모국어로 하면서 일본어로 대응이 가능한 정도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채용하고 있다. 독자적인 영어과 교육과정을 작성하고 지도하며, 이는 매년 새롭게 수정·보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한 전입생에 대해서는 별도로 영어 학습을 보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3) 초중 일관교육에 대한 평가

2011년 10월 문부과학성은 시정촌 교육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초등학교와 중학교와의 연대에 관한 실태조사(결과)”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우선 초중연대를 실시하는 성과에 대해서 전체(1,763명)의 96%(1,013명)가 성과가 있다고 대답했다(문부과학성, 2011). 성과가 직접으로 있었던 항목을 보면 학생지도, 학업지도, 교직원의 지도력 향상 등의 순이었다. 특히 학생지도 측면에서 상당한 효과를 인정하고 있었는데 그 자세한 내용 중에는 초중학교 간 정보교환 등을 통해서 학생의 문제행동을 감소시켰다는 것을 가장 큰 장점으로 꼽았다.¹⁰⁾

학생의 문제행동 감소는 특별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이나 가정에 관한 파악이 쉬워져서 보다 섬세한 지원을 할 수 있게 때문이라는 대답이었다. 또 기존의 제도에서는 중학교로 옮겨가는 단계에서 아동들이 많은 불안감과 학습면의 격차를 느끼게 되는데 초중 일관교육은 입학 전 “중학교 체험입학” 등의 프로그램 활용으로 심리적 불안이 해소되어 학생 지도상의 여러 문제들도 감소된다는 것 등을 들었다. 학업지도 측면은 중학교 교원에 의한 영어지도가 가능해져 초등학교에서의 영어에 대한 흥미가 높아졌다는 영어교육 관련 사항과 초중학교 교원들이 학습의 계열성에 대해서 생각하며 학생의 지도계획을 세워나갈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가정학습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학교-가정-지역간의 ‘교육’에 대한 의식을 높였다는 의견도 있었다.

학생지도와 기초기본학습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는데 효과를 보이는 초중 일관교육은 앞으로 그 교육적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려면 첫째, 초중 교직원간의 협의, 협력시간의 확보가 절실하고, 둘째, 지도계획의 작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며, 셋째, 시간활용과 편성이 적절이 이루어져도 그에 따른 교재 개발에 힘써야 한다는 점이다. 교사들은 초중 일관교육의 효과에 관한 자유기록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향후의 과제로 꼽고 있다. 첫째, 교원관련 문제로 학교 내의 교원간 공통이해가 기반되지 않아 적극적인 협력을 얻기가 힘든 점, 둘째, 초중교원에 의한 교환수업은 중학교에서 출전수업(出前授業)이 대부분으로 중학교 측의 부담이 크서 소유면허, 즉 교원의 면허상의 관계로 업무발령을 확대해서 실시할 수 없다는 점, 셋째, 초·중교원간의 의사소통 문제나 수업에서 원활한 유연성을 발휘하기 힘든 점, 넷째, 교육과정에 관한 문제로 초중 일관교육 전문 코디네이터(초중학교 간 연대를 코디할 수 있는 교원)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었다.

또 학교간, 특히 동일학교형 9년제 방식이 아니므로 학생과 교원의 이동문제, 국가의 특별한 지원이 없어 선진적인 수업을 하려는 경우 예산확보가 어려운 점과 시정촌에는 인사권이 없어 교직원의 의식고양을 도모하는 일이 어렵다는 점 등 제반여건 상의 문제도 있었다. 초중 일관교

10) 초중학교를 통합운영하면 중학생에 의한 초등학생 폭력행사 등이 우려되지만, 적정규모의 학교에서는 익명성이 사라져서 상호 조심을 하게 되고, 특히 유럽에서처럼 담임연임제 등을 아울러 실시하면 학생을 더 잘 알게 되어 생활 인성 진로 지도를 더 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육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효율적이고 계통적인 교육과정 및 그에 따른 지도법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며, 시스템을 만든 후에도 정착 위해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무엇보다 학교, 가정, 지역이 함께 의무교육을 만들어 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장한다는 의식형성이 중요하다.

IV. 일본 일관교육에서 본 우리나라의 통합운영학교의 과제

일본의 일관교육은 크게 초중, 중고 일관교육의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는데, 먼저 시행된 중고 일관교육은 기존의 단일화된 학교제도에서 벗어나 '다양화'와 학교간 선택을 허용하는 '복선화'를 지향하는 새로운 개혁의 움직임으로 학생의 선택을 존중하고 지역의 실정을 반영한 다양화된 중등교육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진 개혁안이다. 중고 일관교육은 의무교육기가 6년이었을 때 중등학교의 전통을 드러내고, 초중 일관교육은 의무교육기에 맞는 학교운동을 잘 대변한다. 모두 평생학습시대에 거의 모든 청소년들이 중등학교를 이수하는 현실에서 학교급간 장벽을 없앴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소자녀화로 학생수가 줄어드는 현실에서 학교경영의 단면을 드러낸다.

우리나라의 통합운영학교는 학생인구가 대폭 줄어든 농산어촌의 현실을 반영해 도입된 제도이다. 학제는 기본적으로 학생을 수용하여 교육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할 때 학생수가 많으면 가급적 분리하여 수용하고, 학생수가 적으면 통합하여 수용하게 된다. 대다수 학생들이 중등학교를 졸업하는 현실에서 학교급간에 졸업과 입학의 계기로 입시와 같은 인위적인 장벽을 두기도 어렵게 되었다. 일본의 일관학교나 한국의 통합운영학교는 '일관'과 '통합'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경직된 교육과정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하나의 시도라는 점에서 공통분모를 가진다.

우리나라의 통합운영학교는 2010년 4월을 기준으로 초·중통합이 45개교, 중·고통합이 51개교, 초·중·고통합이 6개교 등 총 102개교가 운영 중이다. 통합운영학교는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집중지정되어 운영되어 왔으나 최근 7년간은 지정이 저조한 상태이다. 현실적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근 통합운영학교로의 전환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실제적인 운영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합운영학교는 아래의 <표 5>와 같이 수업연한, 학교의 조직, 행정제반 사항들은 기존의 학제 틀대로 유지하거나 또는 바람직하게 일원화되어 있으나, 교육과정 운영과 인사관리 측면은 분리되어 있어 일관적인 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에 어려움이 노출되고 있다.

<표 5> 우리나라 통합운영학교의 유형과 특징

구분	초·중	중·고	초·중·고
수업 연한	각 학교급별 수업연한과 같음.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교장, 1교감 체제 원칙(각 학교별 교감배치 기준 적용 가능) • 각각의 학교를 기준으로 교원을 배치 • 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직원 겸임. 		
교육 과정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제 교과운영 • 수업시간 40분, 45분 택일 (타종없는 일과운영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담임운영 • 수업시간 45분, 50분 택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년제 교과 및 교과 담임으로 운영 • 수업시간: 학교급별 운영
인사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 복수자격증 소지교사 우선 배치 • 소지 자격증에 따라 수업 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지 자격증에 따라 수업 겸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중등 특수자격증 소지자 교사 우선 배치 • 소지 자격증에 따라 수업 겸임
재정 운영	회계 관리 일원화		
시설· 설비 기준	학교급별 설비 기준을 학생 수별 기준으로 적용 (총 학생정원을 최상급학교의 학생정원으로 보고 적용)		
사무 관리	일원화		
감독 기관	지역교육청	도교육청	도교육청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활동 및 특별활동에서 다양한 편성과 운영이 가능 • 초중간 인적·물적 자원 지원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정규모 유지 • 교육과정 정상화 • 상치교과 해소 • 중·고교간 인적·물적 자원 지원과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 후 활동 및 특별활동 등 다양한 편성과 운영 • 초·중·고교간 인적·물적 자원 지원과 활용

* 출처: 신석근(2002) 초중 통합학교 운영형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8과
최준렬(2008).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 실태분석과 개선 방안. 교육인적자원부. 108을 재
구성함.

일본의 일관교육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통합운영학교도 교육과정 운영의 유연성을 부여하는데서 오는 변화로 인해 장점과 함께 어려움도 가지고 있다. 통합운영학교가 가지는 문제점에 대해 임연기(2011)는 교육과정 통합운영 자체가 어렵고, 우수학생의 진출이 많지하며, 관리지침이 부적절하고 관할청이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교무행정 및 교과조직 분리가 곤란하고, 통합 관련 의식이 학교 전반에 부족한 것으로 지적한다. 홍후조와 민부자(2012)는 이것이 「6-3-3」 제의 학제, 「6-6」 제의 교원양성 및 운용제, 「9-3」 제의 의무교육과 서로 상

충하는 데서 빚어지므로 기본 제도들 간 일치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아래의 표는 초중, 중고 일관교육 또는 통합운영학교가 가지는 장점과 단점을 비교한 것이다. 초중 및 중고 일관교육이나 통합운영학교는 모두 평생학습사회, 고학력사회, 만민평등교육사회에 부응하는 학교제도의 유연화라고 할 수 있다.

<표 6> 초중 일관(통합)교육과 중고 일관(통합)교육의 장단점 비교

	학교형태	세부 내용
초중 일관(통합) 교육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교육기의 기초 기본교육을 충실히 실시할 수 있음 • 학생발달에 적합하고 사춘기 적응교육에 유리함 • 농산어촌의 소규모 학교를 통합 운영하는데 편리함 • 가정·학교·지역간 상호협력, 연계교육에 충실할 수 있음 • 공통기본교육과 상이선택으로 나누어진 교육과정 시스템에 적합함 •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의식과 국민정체성 형성교육에 유리한 편임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 중등 교원 양성 체제나 교원 운용 방식과 맞지 않음 • 초등 저학년과 중학교 고학년의 발달상의 차이가 매우 큼 • 초등의 담임지도제와 중등의 교과담임제의 운용방식이 서로 다름 • 초등과 중등의 수업 및 생활지도가 서로 다름
중고 일관(통합) 교육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입시준비에 유리함 • 청소년기 특성에 알맞은 일관교육에 유리한 편임 • 장기적인 전망 아래 진로지도할 수 있음 • 과거 6년 의무교육이었을 때 설립된 6년제 중등학교의 전통을 살릴 수 있음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준비위주의 수험준비교육에 치중함 • 학교들이 입시실적을 내는데 치중할 수 있음 • 학교간 서열화, 입시명문교화를 날기도 함 • 공통필수와 상이선택으로 나누어진 교육과정제와 충돌함 • 고교 교육과정의 특성화, 다양화, 진로화를 추구하는데 장애가 됨 • 의무교육기와 비의무교육기의 혼재로 인한 행정, 재정상의 문제 초래

평생학습사회에서 학생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달을 돕는 일관된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들어 한국에서는 선거를 앞둔 정당에서 고교의 의무무상화가 공약으로 운위되고 있고, 여성의 사회 참여와 영유아 복지 확대 차원에서 취학전 3년간 공통된 누리 교육과정을 편성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무성하다. 취학전 교육 3년, 초교 6년, 중학교 3년, 고교 3년에서 일관된 교육을 실시하되, 다음 단계가 전단계를 단순히 확대 반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점에서 의무교육을 충실히 하여 기초 기본 교육을 다지고, 다양한 갈래의 대학과 직업세계를 준비하게 되는 중등학교의 진로교육을 제대로 실시한다는 전체를 만족시킨다는 측면에서 학제의 정비 필요할 것이다.¹¹⁾

학생의 발달단계와 학습하는 방식을 보면 취학전 유아교육과 초등 저학년에서는 미분화 통합

된 교과를 생활 속의 놀이를 통해서 학습하고,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교 사이에서는 기본적인 교과를, 제7차 교육과정기의 국민공통기본교과처럼 교과를 통해서 학습한다. 또한 고교에서는 선택교육과정처럼 대학의 진학이나 사회의 직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진로에 따른 학습을 선택과 집중하는 시기이다. 그렇다면 중학교 이전까지의 공통교육기와 고교 이후의 서로 다른 것들 중에서 선택하여 학습하는 선택교육기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예는 영미식의 「8-4」 제나 핀란드의 9년간 기초교육하는 통합학교(comprehensive school for basic education)에서 찾아볼 수 있다. 즉 초중 일관교육이나 초중 통합운영학교는 의무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는 점이다. 이것은 초중학교에 해당하는 국민보통교육을 차별 없이 책임지고 교육하는 제도를 모색하는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의무교육기 9년을 초등 6년과 중학교 3년을 단절시키지 않고 연계하여 교육함으로써 기초 기본 교육을 튼튼히 하자는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홍후조, 민부자, 2012).

아래 표는 우리나라에서 초중 통합운영학교가 중고 통합운영학교보다 상대적으로 장점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본 논문의 이런 입장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는 예시이다.

<표 7> 우리나라 통합운영학교에서 초중과 중고의 교육효과 비교

내용	학교 유형	
	초중 통합운영학교	중고 통합운영학교
학교시설 활용	3.58	3.29
학교문화, 풍토	3.72	3.61
교육과정	3.46	3.18
행정 및 재정	3.27	2.89
지역사회 연계성	3.40	3.04
교원인사	3.18	3.19
학업성취	2.90	2.44
평균	3.36	3.09

* 출처: 이정애(2010). 초중고 통합운영학교의 교육 효과 분석을 토대로 재구성한 것으로 Likert 5점 척도를 사용.

- 11) 역사적으로 동양에서도 15세를 전후해 학생들의 교육을 나누었고 사실상 사춘기를 벗어나 어른 티를 내는 시기(옛 문헌은 이를 '成童'이라고 표현한다: 신창호, 2011 참고)부터 학생의 수용을 성격이 다른 교육기관에서 한 것이다. 이러한 구분은 학습자의 발달 단계에 주목하여 교육하는 것으로 시대에 따라 그 단계가 변화하면 교육방법이 달라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미국의 아동심리학자인 Elkind(1984)에 의하면 이미 1980년대 시점에 아동의 초경시기가 30년간 1.5년 정도 빨라졌으며 현재의 시점으로 보면 거의 2년 정도 아동의 성장이 빨라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최근 학생들의 성장 가속화 현상은 두드러지는 것으로 이를 고려한 교육적 배려나 학제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초중 9년과 중고 6년은 모두 수학기간을 늘림으로써 교육과정 편성 운영에서 융통성을 가져올 수 있다. 교육과정 운영에 연계성 혹은 융통성을 부여한 것은 양날의 칼처럼 사용하기에 따라 교육적 득실이 다르다¹²⁾. 대체로 고입장벽이 매우 낮은 초중 9년과 달리, 대입시가 중요한 현실에서 중고 6년제의 시간적 여유는 대입시를 도착점으로 교육과정 운영의 융통성을 발휘하게 된다. 일본의 중고 일관교육에서도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화를 위해 편성과 운영에 자율성과 탄력성을 허용한 것이, 대학진학 실적 위주의 편법적인 교육과정 편성 및 운영을 위한 장치로 전락하였다는 보고도 적지 않다. 즉 보다 이른 시기에 재능을 발견하고 성장시켜주는 잠재력 개발교육의 취지보다는 대학입시에 유리한 경쟁적 우월과 승패 교육의 이미지가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의 많은 고교에서 3년 안에조차도 2년~2.5년에 압축 내지 속진을 하여 진도를 다 나가고 마지막 학기나 학년에는 대입시를 위한 시험문제 풀이 등으로 파행 운영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도한 선행학습과 속진으로 인하여 사교육을 필요로 하고, 학생들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며(김영철, 2006), 학습내용의 이해에 미치지 못하고 단순암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는 6년간의 시간적 여유가 학생들의 인간적 성숙과 학업적 기본을 다진다고보다 입시준비를 더 효과적·효율적으로 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다. 대학 서열화에 따른 사회적 유불리가 분명한 일본이나 한국 현실에서 공립학교와 경쟁해야 하는 사립학교에게 중고 일관학교는 매우 매력적인 대상이 될 수도 있지만, 교육적으로 중고 일관학교는 단점이 적지 않은 제도이다. 그렇다고 중고 일관학교가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행 학제를 중심으로 교사자격제도 및 학교 운영이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중고 일관교육에서는 교원수급과 학교 전반의 행정 문제 해결이 수월하고, 상대적으로 학교문화도 안정적인 편이다.

취학 전과 초등학교 저학년은 놀이중심, 생활중심의 미분화 통합된 교육과정상으로 연계되어 있듯이, 초등 고학년의 교육과정은 중학교와 공통필수의 교과교육으로 공통점이 더 많다는 점이다. 중고 통합운영의 경우 교육과정 상에서 고교 교육과정이 중학교의 내용을 확대하여 반복심화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국·영·수 편중 교육을 더욱 심화시키는 획일적 교육을 낳을 수 있다. 초중 일관교육은 기초기본교육 과정을 내실화한다는 점에서 미래사회가 갖추어야 할 역량

12) 교육과정 유연성을 부여할 시에는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 연계성의 특징을 고려하여 방향성을 설정해야 할 것이다(梨子, 2004). 학교급간 교육과정 연계성은 첫째, 학교단위제의 자립성·독립성이다. 인간의 발달을 고려하면 그 발달은 연속적 과정이나 한편으로 각각의 발달 단계에 의한 교육이나 학습요구는 달라진다. 이러한 방면에서 생각하면 모든 발달 단계에 공통적인 학교단위를 만든다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각 학교단위의 자립성과 독립성이 필요하다. 둘째, 문제제기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교육과정의 연계는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문제가 생겨난다는 특징을 가진다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연계 관계의 교육 단계적 이질성을 들 수 있다. 각 학교 단계 내에 학교상호 연계, 접합 관계라는 것은 각각의 교육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각 학교 스스로 기능이나 성립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기원과 관련된다. 이러한 특징들은 교육의 긴 전통 속에서 성립된 것들로 연계를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교육과정의 연계, 접합을 고려한 통합운영과 같은 새로운 학교제도의 개혁은 교육 '연계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선시됨을 알려준다.

기본 교육과 시대적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변화에 대처하는 데에도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으로, 우리 교육현실에는 초중등 통합 운영학교는 우선 초중학교를 통합운영하고, 고교의 특색을 갖추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잠정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요컨대 초중, 중고 일관교육 모두 장단점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학제, 교육과정제, 교사 양성 운용제, 의무교육제 사이에 일치를 기할 수 있다면 상대적으로 초중 일관교육, 초중 통합운영학교가 기초 기본 교육을 튼튼히 해야 한다는 공교육의 취지에 비추어 본다면, 이런 제도적 준비를 통해서 의무교육을 충실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더 적절해 보인다.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일본의 초중 일관교육과 중고 일관교육의 도입 배경을 살펴보고 나아가 단위학교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학제, 교육과정 운영제, 학생 발달과 수용, 교원 운용, 학교 운영상의 시설 및 재정 활용 등을 둘러싼 일관교육의 교육적 장단점 등을 살펴보았다. 평생학습시대, 고학력사회, 학생수 급감, 높은 사립학교 비중, 높은 비중과 치열한 경쟁의 대학입시, 대학의 서열화와 대학 간판의 사회계층의 배분 기능 등에서 유사한 제도와 문화적 전통을 갖는 일본의 일관교육 사례는 한국의 통합운영학교에도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자연히 이 연구는 학생수가 점차 줄어들어 소규모학교 통합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 한국 현실에서 어떠한 식의 통합운영학교가 교육적으로 바람직한 미래상인가를 살펴보는 데 시사점을 얻기 위한 현실적 필요도 있었다. 더 크게 보면 이 연구는 우리나라처럼 학생의 입학과 수학기간 및 졸업을 중심으로 한 학생수용의 학제(6-3-3), 고시되는 교육과정 형식(6-3-3), 교육과정의 공통과 선택의 내용 특성(9-3), 교원 양성 및 운용(6-6), 의무와 비의무교육(9-3) 등이 서로 불일치하는 속에서 이를 해소하는 발전적 방향을 찾아보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진행된 것이다.

일본에서 초중, 중고 일관교육은 아직 도입계획이나 시행실제와 같은 정책 또는 조사 자료가 대부분의 연구를 차지한다. 따라서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경험된 초중, 중고 일관교육의 실상”은 향후 시간을 두고 효과를 지켜봐야 한다(Ando, Netsu, 2010). 다만 잠정적으로 초중 9년간, 중고 6년간 통합 혹은 일관 교육을 하는 데에서 갖는 시간적 여유를 통해 교육과정의 편성 운영상 여유가 어느 쪽으로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대입시가 중요하고 대학의 서열화가 어느 정도 분명하며, 어느 대학을 입학했느냐가 사회적 계층 배분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일본에서는 대입시준비에 유리한 중고 일관교육의 운영 사례가 더 많이 드러나고 있다. 즉 일관교육에서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생들의 잠재된 재능을 발견하고 성장시키는 하나의 교육적 배려로 주목하기보다, 대입시를 압축

적,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방편으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의무교육기의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분리하지 않으면서 중등전기를 입시준비에서 어느 정도 떨어뜨려 놓아, 교육적 배려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초중 일관학교가 상대적으로 교육적 장점을 많이 낳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립학교의 비중이 높고 사립과 공립이 대입시에서 경쟁관계가 되는 현실에서, 대입시 실적이 학교의 명성을 쌓고 학생과 학부모의 현실적 요구를 만족시킨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사립학교들이 중고 일관학교의 전통을 되살리려는 방편으로 초중보다 중고 일관학교를 선호한다는 현실적 장애도 적지 않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어느 한 가지 제도적인 형태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교육과정을 담는 학교제도가 유연성을 가지고 그 형태를 변화시킬 수 있어야 다양하고 특징 있는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고 보는 유예적인 입장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농산어촌을 중심으로 학생수 급감으로 인해 통합운영학교를 취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에서 초중 통합운영학교와 중고 통합운영학교 중 어느 쪽이 교육적 유익이 큰가를 가늠하는 부수적 목적도 있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실정 특히 학교장을 비롯한 교직원의 학교경영의지가 많이 작용하는 부분이기도 하여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평생학습과 고학력사회,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수 급감, 높은 비중의 사립학교, 치열한 경쟁의 대학입시, 대학의 서열화와 이의 사회계층의 배분 기능 등에서 유사한 제도와 문화적 전통을 갖는 일본에서 중고 일관교육이 갖는 폐해가 적지 않다는 것을 목도하였다. 우리나라의 학제는 「6-3-3」이고, 교육과정은 「9-3」제이며, 교사양성과 운용은 「6-6」제인데, 소규모학교 통합운영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것은 교사의 자격에 의한 교사 운용이다. 즉 학제, 교사 양성 운용제, 교육과정제 사이의 불합치(mismatch)가 우리나라 초중등학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는 초중등 통합운영학교에서 한 지붕 두 가족 혹은 세 가족의 형태로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만약 학교가 학생의 일관된 성장과 발달에 따라 일관된 체제를 갖추고 있다면 오늘날 교육법이나 그 시행령이 전제로 하는 학교급을 분리하여 운영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럽지 못한 제도가 되며, 도리어 초중등학교 통합운영학교가 정상적인 학교가 되는 셈이다. 그 중에서도 학생의 발달단계, 의무무상교육, 교육복지, 통학거리, 학교와 지역사회 및 가정의 협력 등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초중학교는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여 학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잠정적인 결론은, 입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워 전인교육에 충실할 수 있다는 일본의 초중 일관교육이나, 더 확대하여 구미의 의무무상교육기 전단계인 8-9년 통합학교(comprehensive school)제에서 기본교육에의 충실화의 이점을 고려할 때, 이에 해당하는 우리나라의 9년제 초중 통합운영학교가 6년제 중고 통합운영학교보다는 상대적으로 제도적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교육과정에서 국가수준의 연구 개발이나 학교수준의 편성과 운영이 6-3-3제라는 기본 틀에 막혀 탄력성을 발휘하지 못한, 혹은 어려웠던 부분들을 해결할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한 점도 있었다. 반드시 초등 6년과 중등 6년 혹은 초중 9년과 고교 3년이라는 틀로써 교육과정을 연구 개발 혹은 편성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의무교육을 단순히 100% 취학, 기본교육비의 무상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핀란드처럼 충실히 내실있게 교육하자면 다른 제도적 틀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한 사람이 태어나 자라면서 취학전, 초등학교, 중학교, 고교를 거쳐 교육된다는 학생의 관점, 교육수요자 관점에서 보면 학교는 낱알이 별도로 떨어져 존재할 필요도 운영될 필요도 없다. 학교의 종류를 별도로 하고, 교사의 양성, 자격 부여, 운용을 별도로 하고, 교육과정을 학교급별로 만들어 고시하는 것은 교육제공자의 관점에서는 관례로서 편리한 제도이지만, 학생의 관점에서는 그간 익숙한 학교로부터 졸업하여 새롭지만 낯선 학교에 입학해서 새로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특히 담임제의 초등학교와 교과담임제의 중학교가 갖는 상이한 학교운영방식은 중학교 신입생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다. 초등학교 고학년과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이 사춘기를 맞는 청소년 전기 학생들에게 부드러운 교육적 연계를 주는 중학교(middle school)가 더 바람직하지만, 현실의 중학교는 교과 수업지도나 학생 생활지도, 교원 운용, 교실 이동수업 등에서 고교를 닮은 중학교(junior high school)이다. 여전히 의무교육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충실히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일본의 일관교육 운영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의 통합운영학교의 더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 나아가 의무교육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간 불일치를 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해보려는 것이었다. 한 논문으로 다루기에는 거대한 주제인 학제, 교사 양성 운용제, 교육과정제 3자 사이의 불합치의 관점에서 일본의 일관교육을 통해 우선 통합운영학교 문제 해결을 모색하되, 어떤 형태의 통합학교가 더 바람직한가에 대한 시사를 받으려는 시도였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중고보다 초중 통합운영학교가 의무교육제의 취지에도 맞으며, 향후 우리나라 학제, 의무교육제, 교육과정, 교사 양성 운용제의 상호 일치를 위한 기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역으로 말하면 초중 통합운영학교도 의무교육을 위한 제도간의 일치를 통한 정비의 바탕 위에 기초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학교간 연계와 접합을 시도할 때는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기도 한다. 이 문제에는 일관된 교육을 위한 법령의 정비(임연기, 2011), 학제의 정비(한국교육개발원, 2006a; 2006b; 2006c), 학교급간을 잇는 주체로서 교원의 양성 및 운용에서 통합성과 융통성 확보(홍후조, 2012), 교육과정의 연계와 특성화(홍후조 외, 2011; 이승미, 2010; 박순경, 2009; 김진숙, 2006), 학생 수용 제도(최준렬, 1996), 학생 발달단계에 대한 시설 등의 다면적 고려(최준렬, 2008) 등 복잡한 연구과제들이 놓여있다. 다만 기초 기본 교육은 의무무상교육으로서 학생이 처한 어떠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균등한 교육 기회, 진행 과정, 성과 및 결과를 보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초중을 통합하는 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영철 (2006). 각급학교 수업연한의 적정화. 한국교육개발원. **미래 학제 탐색을 위한 쟁점 토론**. 제4회 학제연구 정책토론회 연구자료. 203-235.
- 김진숙 (2006). 교육과정의 연계성 탐구: 유치원-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연구**, 24(4), 83-108.
- 노기호 (2008). 일반교육기본법의 개정 내용과 특징. **공법학연구**, 8(2).
- 문부과학성 (2010). **학교기본조사보고서(초중등교육기관 전수·각종 학교)**.
- 박순경 (2009). 초등 저학년 교육과정에서의 교육 내용 중복과 교과 통합 방식 고찰. **교육과정연구**, 27(4), 119-140.
- 변자정, 홍후조 (2012). 일본의 일관교육이 우리나라 초중등 통합운영학교 교육과정에 주는 시사점 분석. **고려대학교 교육과정학회(KUCU) 발표 논문(2012.1.27-28. 경기 수원시 화성 사랑채)**.
- 신석근 (2002). 초중 통합학교 운영형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윤종혁 (2008). 학력향상을 위한 일본의 공교육개혁. **교육개발**, 35(1).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이승미 (2010). 초등학교 1학년과 유치원의 교육과정 연계성 분석. **교육과정연구**, 28(2), 59-90.
- 이정애 (2010). **초·중·고 통합운영학교의 교육 효과 분석**.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이혜영, 강영혜, 박재운, 나병현, 김민조 (2008). **미래 학교 모형 탐색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임연기 (2011). **초·중·고 통합 운영학교 발전 방안 탐색**. 공주대학교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 주관 제2차 워크숍 자료집.
- 장덕호 (2011). **통합운영학교 인사와 조직의 개선 방안**. 초·중·고 통합운영학교 발전방안 탐색. 교육과학기술부·공주대학교 한국농촌교육연구센터. 제2차 워크숍 자료집.
- 최준렬 (1996). 미국아이오와주의 통합학교 운영에 관한 고찰. **교육학 연구**, 1(1), 89-101.
- 최준렬 (2008). **농산어촌 소규모학교 통합할 실태분석과 개선방안**. 교육인적자원부.
- 한국교육개발원 (2006a). **미래사회변화 전망과 학제**. 제1회 학제연구 정책토론회연구자료.
- _____ (2006b). **외국의 학제 개혁 동향**. 학제연구 전문가토론회 연구자료.
- _____ (2006c). **미래 학제 탐색을 위한 쟁점 토론**. 제4회 학제연구 정책토론회 연구자료.
- 홍미리 (2003). 일본의 교육개혁에 있어서 「총합적 학습의 시간」의 의미. **일어교육**. 한국일본어교육학회.
- 홍광식 (2009). 일본의 초·중 일관교육을 통한 의무교육의 질 향상에 관한 연구. **한국일본교육학 연구**, 13(2). 한국일본교육학회.

- 홍후조 (2012). **의무교육의 충실화를 위한 일관 교육과정의 설계 방향**. 안암교육학회 발표자료 (2012.2.10. 서울 수유리아카데미하우스).
- 홍후조, 민부자 (2012). 의무교육에서 학교·교원·교육과정 제도간 불일치의 문제와 과제, **교육정치학연구**, 19(1)(근간).
- 홍후조, 김영순, 민부자, 이승미 (2011). **교과 교육과정 내용 연계와 적정화 방안 연구**.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위탁과제 답신보고.
- 홍후조, 강익수, 백경선, 성열관 (2008). **교육과정 적정화 및 필수 교과 조정 방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08년 교육과정 선진화 위탁과제 답신 보고.
- 홍후조, 최준렬, 허종렬, 김진숙 (1999). **초·중등 통합 운영 학교의 효율적 운영 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 초·중등학교 통합운영연구위원회.
- Ando, Y., Netsu, T. (2010). The issue of "Curriculum Articulation" for Unified Compulsory Public School. *The Japan Society for the Study of Education*, 77(2), pp. 183-194.
- Elkind, D. (1984). *All Grown Up and No Place To Go-Teenagers in Crisis*, Addison-Wesley.
- 安彦忠彦 (2004). 6-3제를4·2-3제へ : 小学校と中学校の接続関係articulationに関する調査研究 (6-3제를 4·2-3제로. *The Bulletin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of Waseda University* 14, pp. 1-21.
- 梨子千代美 (2004). わが国における就学前教育と小学校教育とのアーティキュレーションの必要性に関する再考. *Bulletin of Institute of Educational Research* (13), pp. 57-65.
- 清水一彦 (1987). 教育におけるアーティキュレーションの概念と問題性. *清泉女学院短期大学紀要*, (5), pp. 23-35.
- 藤田英典 (1997). *教育改革…共生時代の学校づくり*. 岩波書店〈岩波新書〉, pp. 79-86.

국가통계포털 홈페이지 <http://www.kosis.kr>

미야자키현립 고카세 중등학교 홈페이지 <http://gokase-h.com>

시나가와구 홈페이지 <http://www.city.shinagawa.tokyo.jp>

이이난 고등학교 홈페이지 <http://www.mie-c.ed.jp/hiinan>

아이치현 토비시마촌 <http://www.vill.tobishima.aichi.jp>

일본 문부과학성 <http://www.mext.go.jp>

일본 교육정보 내셔널 센터 <http://www.nicer.go.jp>

일본 학술정보 사이트 <http://ci.nii.ac.jp>

일본 총리관저 홈페이지 <http://www.kantei.go.jp>

Benesse 교육정보 사이트 <http://benesse.jp>

NTS 教育研究所 데이터집 <http://eri.netty.ne.jp>

* 논문접수 2012년 2월 15일 / 1차 심사 2012년 2월 15일 / 게재승인 2012년 6월 30일

* 홍후조: 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학으로 석사학위를,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에서 교육과정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주요저서로는 '알기 쉬운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이해와 개발',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교육과정: 이론과 실제', '교육과정 50년' 등이 있다.

* E-mail: educu@hanmail.net

* 변자정: 성신여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교육과정으로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관심분야는 예술계 교육과정과 일본 교육이다.

* E-mail: bjj819@hanmail.net

Abstract

Case Studies on the Japanese Seamless School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n Integrated Management Schools

Hong Hoo-Jo*

Byun Ja-Jung**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urrent stage of the Japanese seamless school system, known to be flexible in development of the curriculum, in order not only to diagnose the present circumstance in which school transition, curriculum, and training and management of teachers are not orchestrated, but also to provide the key to solve the problems immanent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integrated management schools in Korea. The objectives of seamless education are first, to assign more flexibility to the existing separation between school transition and curriculum, and second, to design a specialized education considering a learner's development and competence through a consistent and systematic curriculum under the idea of life-long learning. To achieve these objectives, seamless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attempts to diversify and specialize its curriculum which suits a learner's aptitude rather than converges on career-oriented education. Seamless education for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should emphasize a basic education that provides a fundamental platform for a learner's development supported by a reduction of competition for entrance test.

After considering the current state of Korean integrated management school based upon the concept, case studies, and assessment of seamless schools of Japan, is revealed one substantial concern that seamless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 education may intensify the risk of an educational stratification by unequal distribution of benefit as well as of standardization that overemphasizes major subjects required for university entrance examination. Consequently, this study suggests in order to improve the Korean integrated management school that it is necessary to study as well as to reflect the Japanese seamless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education which meets a learner's developmental stage, reinforces a foundation to enrich his/her future capability, and enhances a strong bond between community, family, and school.

* Professor, Dept.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 Corresponding author, Doctoral candidate, Dept. of Education, Korea University

Key words: curriculum articulation, seamless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seamless junior and senior high schools, school transition, korean integrated management school, compulsory education, school system, grade schools.